자기 대면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내 안에 걱정. 염려로 인한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불안의 원인을 알고 싶었고 회복되길 원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첫 시간 부터 지금까지 매주 강의가 기다려졌고 숙제도 열심히 하면서 한주 한주 보냈던 아주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첫 강의가 얼마지나지 않아 건강검진을 통해 갑상선 암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열심히 배우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복하고 싶어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시기에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벧전 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 붙들고 주님께 맡기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고 내 머리속은 걱정. 염려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수술날을 정하고 수술하기 전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찬양을 들었지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수술 후 수술은 잘 되었고 전체 절제가 아닌 부분절제로 호르몬 치료도 필요없고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 된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감사기도를 올려드렸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꼈습니다.

내 안에 불만이 있어 자기대면을 듣게 하는 것, 그 기간중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것, 또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처럼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주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만에 일부 였던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기간을 통해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추수감사 신년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를 사모하고 완주했고 더욱이 부활절 새벽기도는 목장식구들과 함께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목장식구들과 매일 QT 말씀을 새벽기도를 통해듣고 묵상하고 카톡방을 통해 나누고 서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생활을 하는 목상식구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알수도 없고 짐작할수 없는 방법으로 크신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구나를 생각했습니다.

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처럼 나에게 피할길을 주셨고 주님의 위로와 사람을 부어주셨습니다

자기 대면은 마치는 지금 나의 모든 문제들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 불안문제도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불안한 감정은 죄가 아니나 불안한 감정으로 인한 생각, 말, 행동은 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되었고,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매일 넘어지지지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시편 119:05 말씀처럼 주님 말씀은 어두운 길을 갈때 등불이시고 내 길에 빛임을 자기대면을 통해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들 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고자 오늘도 몸부림 치고 발버둥 치면서

주님말씀을 기준삼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